

노벨평화상 수상식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눈물로 떠나보낼 줄이야



김 전 대통령 마지막 순간 지킨 세브란스병원 레지던트 이우경씨

9년만에 만난 대통령은 예전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다. 노벨평화상을 두 손에 들고 환하게 웃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병원 침대에 호흡기를 낀 채 싸늘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의사는 지난 2000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초청됐던 여수 출신 이우경(24)씨, 9년 전 15살이었던 이씨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레지던트 3년차 의사가 돼 지난 16일부터 3일간 김 전 대통령을 치료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당시 김 전 대통령 측이 이씨의 최연소 연세대 의대 합격 사실을 알고,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제의해 시상식에 참가했다. 그는 불편한 다리로서상에 오른 김 전 대통령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지난 1997년 여수 문수초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잇달아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한 이씨는 광주과학고등학교를 2년 다니다 연세대에 합격했다. 이후 2006년 연세대에 합격해 국내 최연소 의사로 등록하기도 했다.

“제게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라’고 당부하시며 김 전 대통령은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짧았던 순간인데도 살면서 문득문득 그때 생각이 나요.”

이씨가 당시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본 김 전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친절했었다.

그로부터 9년 뒤 지난 16일 김 전 대통령과 두 번째이자 마지막 만남이 이뤄졌다. 그 장소는 이씨가 근무하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이씨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김 전 대통령을 치료했다.

“제가 바로 9년 전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했

던 학생입니다.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라고 반갑게 인사하고 싶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희호 여사에게도 행여 방해 될까 미처 말을 붙일 수 없었다.

이씨는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켰다. 서거 당일 오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증세가 나빠졌고, 마침내 오후 1시43분 심장 박동이 멈췄다.

“제가 답답이 됐 때는 ‘꼭 중환자실만이 라도 나가게 해 드리지’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 힘쓸수록 현대 의학의 한계랄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이씨는 “김 전 대통령과 비슷한 환자가 생기면 언젠가, 그때는 꼭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강정보대 평생학습중심대학 수료식



서강정보대 평생교육원(원장 백진호 교수)은 최근 대학 서정홀에서 김정수 서강정보대 총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1차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수료식'을 갖고 방과 후 이공지도사 과정을 이수한 전은애(여·42세) 등 309명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했다.

한국과학교육학회, 국제·하계학술대회



한국과학교육학회(회장 정진우·한국교원대 교수) 2009년 국제 학술대회 및 제56차 하계학술대회 개최식이 최근 전자정보공과대학 IT홀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미국, 호주, 일본, 대만, 홍콩의 교육자들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호남대-시교육청 인재육성 상호교류협정



호남대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관학협력 협약 체결식이 21일 오전 호남대 광산캠퍼스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상호협력교류협정을 체결, 앞으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적자원 양성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교류 등 교육발전에 협력기로 했다.

조민수 결혼 3년만에 합의 이혼

배우 조민수가 결혼 3년 만인 지난해에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민수 소속사 KM컬처는 21일 “2005년 사업가와 결혼한 조민수 씨가 성격 차로 지난해 연말쯤 합의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KBS특채로 데뷔한 조민수는 드라마 ‘모래시계’, ‘대망’, ‘피아노’와 영화 ‘소년, 천국에 가다’ 등에 출연했다.

조민수는 2005년 4월 연상의 사업가 정모 씨와 결혼했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조민수는 결혼 이후 연기 활동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조너선 리 UCC “DJ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한국계 미 꼬마 환경운동가... CNN 웹사이트에 올라

“대통령 할아버지와 만남은 영광스럽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분을 잃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슬픔에 잠긴 한 어린이의 목소리와 함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 빈소 표정 등이 담긴 UCC 한 편이 세계적인 뉴스채널 CNN 웹사이트에 게재 전세계 누리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 UCC의 제작자는 ‘꼬마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리(12,한국명 이승민)군. 지난 2007년 한국 방문 당시 김 전 대통령과 만나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반나무

심기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조너선은 이후로도 김 전 대통령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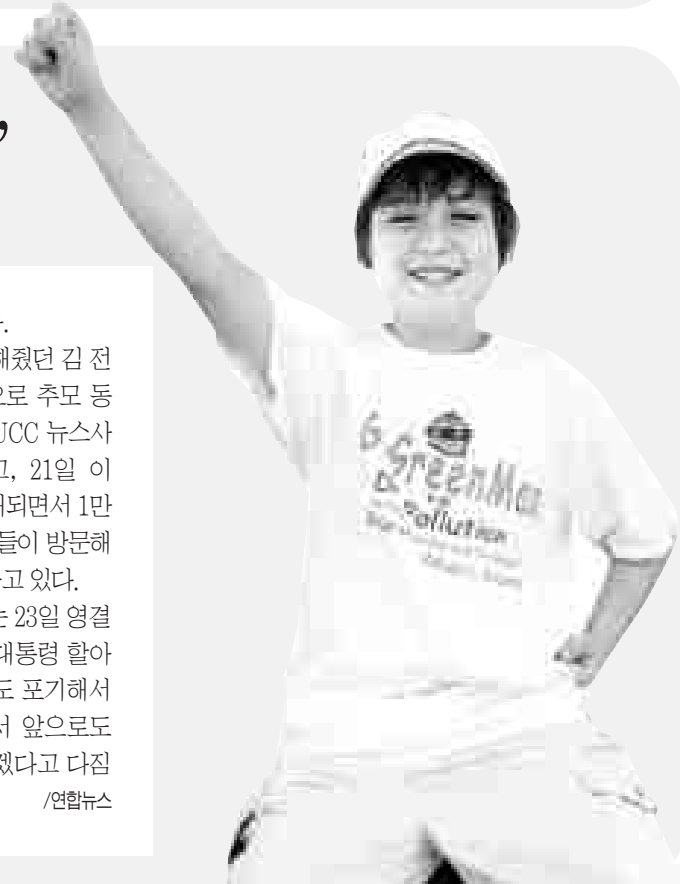
이 때문인지 조너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존 케리 미국 민주당 의원,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의원 등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유명 인사 가운데서도 김 전 대통령을 가장 인상깊은 인물로 꼽기도 했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임원 소식을 들은 조너선은 매일같이 김 전 대통령의 패류를 빌었지만, 끝내 ‘대통령

할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하게 됐다.

조너선은 자신을 친손자처럼 대해줬던 김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고사리손으로 추모 동영상 만들어 20일 저녁 CNN의 UCC 뉴스사이트(www.ireport.com)에 올렸고, 21일 이 UCC가 CNN 메인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1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 각국의 누리꾼들이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함께 애도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의 초청으로 오는 23일 영결식에도 참석할 예정인 조너선은 “대통령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면서 앞으로도 김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동아병원, 보건산업대상 최우수병원부문 대상



동아병원(원장 정재훈)이 의료산업의 선진화와 보건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함을 인정받아 최근 개최된 2009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병원부문 대상으로 선정, 표

창을 받았다. 보건산업대상은 매년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기업을 발굴, 표창해 보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보건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 상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회의 주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가장 섹시한 스타’ 조니 뎀·할리 베리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뎀(사진 왼쪽)과 할리 베리가 가장 섹시한 스타로 꼽혔다. 20일(현지시간) 할리우드닷컴에 따르면 페어데이트 매거진이 독자들을 상대로 투표한 결과 뎀과 베리는 가장 섹시한 커플로 꼽혔던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 커플을 제치고 가장 섹시한 스타에 올랐다. 벤 애플렉의 아내인 제니퍼 가너는

가장 자연스러운 미인과 가장 정상적인 커플에 함께 선정됐고, 올해 초 결혼한 팝스타 피기와 배우 조쉬 더허멜은 가장 성공적인 결혼을 한 부부로 꼽혔다. 또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최고의 트렌드세터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10대들의 역할 모델로 선정됐다. 가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가장 난잡한 사람, 가장 놀라운 커플의 불명예는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패리스 힐튼, 뎀 김스-옥사나 그리고리에바가 각각 얻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정한영) 이사회의는 25일(화)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풍수지리 시인 무료 공개강좌 = 29일(토) 오후 2~6시 호남대 쌍촌 캠퍼스, 풍수지리 천년의 허와실, 영상강의 토의 등. 장외호지리풍수학회 011-629-72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 =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의 = 29일(토) 오후 2~5시 광주대 호심도서관 5층, 수백·나경·임향론·지도상명당 등 이론과 현장 제시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광주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상담 = 가족 갈등,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복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 =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캠퍼스.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 = 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습관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식 등) 관련 전문상담 치료실시 = 본인 및 직계가족 포함.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 = 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 = 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 = 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 =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 = 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 = 국내 입양 상담. 미혼

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오행식사, 기운동, 생활명상) 수강생 모집 =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후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체교정 자격증반 모집 = 근육맞사지, 수기 요법으로 소생술(카이로프랙틱) 교육기간 9월 10일~12월 17일(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1일까지 평생교육교과과에서 접수. 062-670-2167, 010-6426-5905.
▲풋볼프 친선경기 및 회원모집 = 발로 볼을 차 흠을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볼프장. 010-4604-4608.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 = 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부음
▲김영삼씨 별세 광섬·수현·현씨 부친상 = 발인 24일(월)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401호실. 062-670-4444.
▲박말래씨 별세 서옥용·정애씨 주모친상 = 발인 24일(월)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강동임씨 별세 이병순·인범·형순·권범·옥순·세순·미숙씨 모친상 = 발인 23일(일)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김단규씨 별세 윤경·윤진·호진씨 부친상 = 발인 23일(일)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2호실. 062-670-4444.
▲김재역씨 별세 남현·숙현씨 부친상 = 발인 23일(일)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1호. 062-670-4444.
▲최철순씨 별세 김재희·재우·재석·정원·동순·봉순·삼순·옥순·재남씨 모친상 = 발인 23일(일) 학동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프리드
신민국립 동대중합상조
현대중합상조
가정문의 1566-4499